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4권 제1호
Korean J of Childcare & Education
https://doi.org/10.14698/jkcce.2018.14.01.129 2018, Vol. 14, No. 1, pp. 129-148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Child Care Teachers' Life Satisfaction

박봉환[1] 남미경[2]

Bong Hwan Park[1] Mi Kyoung Nam[2]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life satisfaction of child care teacher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sampling 162 child care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job training courses in the Gyeongsangbuk-do region. Three kinds of variables, which included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life satisfaction were measur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PASW 18.0 program for windows.
Results: First,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child care teachers were generally above normal. The resilience subscale showed the highest score in 'affirmative', followed by 'interpersonal ability', 'self-control ability'. And the 'support of colleagues' was higher than 'support of superior' in the social support's subscale. Nex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by child care teachers' background,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silience and life satisfaction of child care teachers' according to their working center types and academic levels. Second, life satisfa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The 'affirmative', 'support of superior' variables were factors that predicted life satisfaction.
Conclusion/Implications: We suggested ways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child care teachers through the 'affirmative' and 'support of superior' variables.

key words child care teacher, social support, resilience, life satisfaction

* 본 논문은 2017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1] 제1저자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외래교수

[2] 교신저자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 namrosa@dhu.ac.kr)

Ⅰ. 서 론

최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양육 및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 변화는 보육시설의 양적확대로 이어졌으며 더 나아가 보육의 질적 수준과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김안나, 2014; 김은수, 2007; 박창현, 2015; 백선희, 1997; 손세영, 임귀희, 남기영, 215; 손흥숙, 2015; 이경선, 2000).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행정적 기준의 마련, 보육프로그램 개발, 양질의 교육과정 및 교재의 보급 등과 같은 물적 자원의 투자와 함께 영·유아들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생

활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수용하여 균형 있는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보육교사의 자질이 중요한 요인임에 이견이 없다(강문숙, 황해익, 2008; 구은미, 2004; 서영숙, 박진옥, 서혜전, 2014; 이경선, 2000; 황해익 외, 2015; Essa, 2003; Helm, 2006; Minor, Onwuegbuzie, Witcher & James, 2002).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한 강조와 함께 최근에는 긍정심리학(Seligman, 2002)의 발전으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교사의 행복과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 지표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개념이며, 일상생활에서 기쁨과 함께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긍정적인 자아관념을 가지고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다(Neugarten, Havighust & Tobin, 1961). 이는 삶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욕구 충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며,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활동과 자원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인 기대와 현실적 보상과의 일치를 의미한다(하춘광, 2015).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를 전후하여 시작된 이후 특히 최근 휴먼서비스 분야 종사자(교사,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경찰관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권대훈, 2017; 김응경, 2013; 류성봉, 2013; 송미경, 양난미, 이은경, 2016; 오정석, 2013; 이지우, 장영혜, 강인호, 2016; 장진이, 이지연, 2014; 정선영, 2017; 조영아, 이재은, 2017; 천경주 외, 2017). 그 중에서도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권대훈, 2017; 박경옥, 김지연, 2017; 송미경 외, 2016; 이은설, 신윤정, 2017)이 다수 진행되었으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보육교사에게 삶의 만족도는 보육현장에서 자신의 내면적・심리적 상태에 따라 행동이나 역할 및 보육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순애, 성소영, 2012; 박경희, 2005). 나아가 보육교사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은 자신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 속한 영・유아들의 생활이나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는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의 질과 전반적인 교육의 수준을 결정하고 행복과 적응능력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곽희경, 2011; 황해익, 탁정화, 홍성희, 2013). 따라서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는 보육의 질적 향상과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환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과 원활한 교직수행을 위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영・유아와 함께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보육교사들에게 있어서 삶의 만족도는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최근에서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구서연, 2017; 권화숙, 2012; 이순복, 원지현, 2013; 장희선, 2016; 최병태, 김이영, 2013). 구서연(2017)은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직무만족도, 교직헌신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권화숙(2012)은 소진, 직무만족도 및 근무환경이 보육교사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또한 사회적 지지와 업무스트레스가 소진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장희선(2016)은 성격강점, 생애목표, 주관적 만족감이 삶의 만족도에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최병태와 김이영(2013)은 인생관, 사회지지와 직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교사효능감은 직무만족도를 매개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교사효능감(곽희경, 2011; 구광현,

김성숙, 2013; 천성문, 2014; 윤갑정, 2012; 황해익 외, 2013), 직무 만족도(권성민, 2011; 김현진, 이수정, 2012; 이미란, 김정원, 2011), 교직헌신(김민환, 2006; 김현심, 2014; 이미란, 김정원, 2011; 이은숙, 2016), 소명의식(송미경 외, 2016), 조직커뮤니케이션 능력(김정희, 김동춘, 2010)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 사회적 지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권화숙, 2012; 최병태, 김이영, 2013). 사회적 지지는 가족, 이웃, 친구들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원조, 조언과 관심으로(김정엽, 2010; 정일영, 김찬우, 2015),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또한 Cobb(1976)는 한 개인이 스스로를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 정보, 존중받고 있다고 믿는 정보와 사회적 관계망에 소속되어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구성원임을 믿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현대의 많은 직장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로서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가 대두되었다(Thomas, Ganster, 1995). 현대의 직장인은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조직생활을 벗어나 논하기 어려울 만큼 조직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 내 상사와의 관계는 개인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사의 지지는 부하에 대해 갖는 관심의 정도로서 부하 직원의 욕구에 대해 갖는 관심과 신뢰이며, 부하 직원이 자신의 업무 수행에 대해 상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상사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의 정도이다(Greenhaus, Parasuraman, & Wormley, 1990). 따라서 높은 상사의 사회적 지지가 부하 직원의 직무만족에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더 만족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며, 특히 조직 내에서 동료와의 관계는 자신의 일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여러 문제를 의논하기에 적합한 조직적·사회적·법적으로 지위가 동등한 사람을 동료라고 일컬으며(김이영, 박현숙, 2005), 이들로부터의 지지 또한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요소가 된다. 특히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이 갖는 조직 특성상 상사와 동료교사들과의 제한된 관계를 형성하며(이정희, 조성연, 2011; 조성연, 이정희, 2010), 교사가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를 통해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나 때로는 상사, 동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권화숙, 2012; 최병태, 김이영, 2013). 한편 유치원교사의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사회적 지지가 기여하고(배영선, 2007), 부모와 친구의 지지가 예비유아교사의 삶의 만족도를 촉진하며(문은식, 2015), 또한 유아교사의 조직몰입에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조성자, 문수백, 민하영, 2008).

한편,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량이 많고 업무시간이 장시간이라는 보고를 통해 이들이 겪는 직무관련 스트레스나 소진의 정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박동필, 이지연, 2016; 이정희, 조성연, 2011; 황해익, 탁정화, 강현미, 2014), 보육교사들 중 일부는 직무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극복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서 보육교사로서의 성숙된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수현, 이승연, 2010; Gu & Day, 2007; Le Cornu, 2009). 이와 같이 직무 관련 스트레스, 소진 등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를 완화시켜주며 부정적 인식을 조절하여 역경과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촉매

제 역할을 수행하는 변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보육교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조절하고 완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회복탄력성'이 제시되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인생에서 다양한 역경,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되튀어 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작은 역경과 시련에도 유리공처럼 쉽게 깨지는데 비해 어떤 사람은 더 힘든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고무공처럼 튀어 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몸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듯이 마음의 근육, 마음의 힘을 만들기 위해 훈련하고 노력해야 하며 회복탄력성을 키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다(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은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여러 상황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넓은 의미로는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능력이다(Block & Kremen, 1986).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조직에서 경험하게 되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나 역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정신적 자원임과 동시에 직면하게 될 스트레스나 역경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유아교육기관 내의 직무환경과 보육교사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에게 역할모델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보육교사가 회복탄력성이 낮으면 그 영・유아에게도 회복탄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Gu & Day, 2007). 회복탄력성이 높은 교사는 영・유아에게 정서적인 안녕감을 제공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통해 소속감, 성취감 및 인정받음을 경험하게 해주어 영・유아가 긍정적이고 높은 기대감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영・유아 또한 회복탄력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보육교사는 영・유아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보다 자신감 있는 낙관성과 생산적인 활동으로 높은 질적 수준의 보육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된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에서 직무스트레스, 소진 등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동필, 이지연, 2016; 이정희, 조성연, 2011; 황해익 외 2014), 최효정과 석은조(2013)는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이 직무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직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생활이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가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의 질과 보육의 수준 및 행복과 적응능력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곽희경, 2011; 황해익 외, 2013)을 고려할 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신체적, 정서적 돌봄을 수행하는 보육교사라는 직업 속에서 교사가 가지는 동료와 상사의 사회적 지지와 교사 개인의 심리적 회복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높은 스트레스와 소진에 직면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및 삶의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과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력, 연령, 경력 등 보육교사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김정희, 이용주, 김동춘, 2014), 회복탄력성(김정희 외, 2014; 남미경, 박봉환, 2016)과 삶의 만족도(구서연,

2017; 오옥선, 2014)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나아가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및 삶의 만족도는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 가운데 직무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 191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187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설문 문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62부(응답율 87%)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 = 162)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근무시설 유형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31	19.1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	131	80.9
연령		
30세 미만	40	24.7
30세-40세 미만	59	36.4
40세 이상	63	38.9
학력		
보육교사교육원 졸업	29	17.9
2,3년제 전문대 졸업	92	56.8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41	25.3
경력		
3년 이하	91	56.2
3년 이상	71	43.8
계	162	100.0

<표 1>에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근무시설유형별 분포는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과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으로 구분되는데 정부미지원시설로 분류되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31명(80.9%),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는 31명(19.1%)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현황 중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소속된 보육교사의 비율과 유사하였다. 연령별 분포는 40대 이상이 63명(38.9%), 30대가 59명(36.4%), 20대가 40명(24.7%) 순으로 20대부터 4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었다. 학력은 2, 3년제 전문대 졸업자가 92명(56.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41명(25.3%), 보육교사교육원 졸업자 29명(17.9%) 순이었다. 경력은 보육교사 전문성 담보를 위해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수교육 주기인 3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보육관련 경력이 3년 미만인 교사가 91명(56.2%)으로 3년 이상인 보육교사는 71명(43.8%)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도구

1)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지지 도구는 Thomas & Ganster(1995)의 척도를 윤창영(2001)과 박현주(2011)가 수정번안한 도구이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상사의 사회적 지지 관련 8문항과 동료의 사회적 지지 관련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척도는 5점 리커트(Likert)식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척도의 하위요소와 문항 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문항 수와 신뢰도

구 분	문항 번호	문항 수	Chronbach's α
상사의 지지	1, 2, 3, 4, 5, 6, 7, 8	8	.92
동료의 지지	9, 10, 11, 12, 13, 14, 15, 16	8	.94
사회적 지지 전체		16	.90

2)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복탄력성 도구는 김주환(2011)이 Reivich와 Shatte(2002)의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한국문화에 맞게 수정 보완한 KRQ-53(Korean Resilience Quotient Test)을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의 세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소에서 자기조절능력은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으로 구분되고, 대인관계능력은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기확장력, 긍정성은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본 척도는 총 53개 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진술문 24개 문항은 역산하여 배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수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 척도의 하위요소와 문항 수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문항 수와 신뢰도

구분/하위 요소	긍정 진술 문항	부정 진술 문항	문항 수	Chronbach's α
자기조절능력				
감정조절능력	1, 2, 3	4, 5, 6	6	.83
충동통제력	7, 8, 9	10, 11, 12	6	
원인분석력	13, 14, 15	16, 17, 18	6	
대인관계능력				
소통능력	19, 20, 21	22, 23, 24	6	.87
공감능력	25, 26, 27	28, 29, 30	6	
자아확장력	31, 32, 33	34, 35, 36	6	
긍정성				
자아낙관성	37, 38, 39	40, 41, 42	6	.89
생활만족도	43, 44, 45, 46, 47		5	
감사하기	48, 49, 50	51, 52, 53	6	
회복탄력성 전체			53	.93

3)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 사용된 삶의 만족도 척도는 Diener, Emmons, Larsen와 Griffin(1985)에 의해 개발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김경화(2011)가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나는 대체로 내가 꿈꾸던 삶에 가깝게 살고 있다.', '나는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다.',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한다.', '나는 지금까지 내 삶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을 대체로 얻어 왔다.', '만약 내가 다시 산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와 같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된 단일화 척도이다. 리커트(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8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조사하기 위해 경상북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직무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연구를 위한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보육교사 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적절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windows용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한 설문지를 연구문제에 따라 통계 처리하였다. 먼저 연구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의 배경변인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연구 문제에 따라 보육교사의 사

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삶의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설명력이 높은 순서대로 모형을 보여주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단계적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Durbin-Watson값과 VIF값을 살펴보았다.

Ⅲ. 결과 및 해석

1.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및 삶의 만족도의 차이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및 삶의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을 평균과 표준편차 및 최소값과 최대값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및 삶의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N* = 162)

변인	*M*	*SD*	최소값	최대값
사회적 지지				
상사의 지지	3.57	.80	1.13	5.00
동료의 지지	4.13	.62	2.50	5.00
전 체	3.85	.56	2.56	5.00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능력	3.23	.26	2.63	3.88
대인관계능력	2.94	.22	2.50	3.50
긍정성	3.14	.30	2.35	3.76
전 체	3.10	.19	2.63	3.51
삶의 만족도	3.40	.69	1.20	5.00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 전체의 평균은 3.85(*SD* = .56)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소별로는 동료의 사회적 지지(*M* = 4.13, *SD* = .62), 상사의 사회적 지지(*M* = 3.57, *SD* = .80)로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상사의 사회적 지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전체의 평균은 3.10(*SD* = .19)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소별로는 자기조절능력(*M* = 3.23, *SD* = .2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성(*M* = 3.14, *SD* = .30), 대인관계능력(*M* = 2.94, SD =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3.40(*SD* = .69)이었다.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과 삶의 만족도가 보육교사의 배경변인(근무 시설유형, 연령, 학력,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차이 (*N* = 162)

구 분	*N*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삶의 만족도
근무시설 유형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31	3.79(.61)	3.11(.16)	3.68(.80)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	131	3.86(.55)	3.10(.19)	3.33(.65)
t		-.64	.07	2.63*
연령				
30세 미만a	40	3.79(.54)	3.07(.19)	3.59(.69)
30세-40세 미만b	59	3.89(.54)	3.10(.18)	3.27(.73)
40대 이상c	63	3.85(.60)	3.13(.19)	3.39(.64)
F		.43	1.69	2.63
학력				
보육교사교육원 졸업a	29	3.86(.56)	3.07(.20)	3.26(.75)
2,3년제 전문대 졸업b	92	3.88(.58)	3.09(.19)	3.33(.65)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c	41	3.78(.52)	3.17(.14)	3.64(.70)
F		.46	3.28*(a, b〈c)	3.61*(a, b〈c)
경력				
3년 미만	91	3.84(.61)	3.11(.19)	3.38(.71)
3년 이상	71	3.87(.50)	3.09(.19)	3.42(.68)
t		2.59	.18	1.01

*$p < .05$.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회복탄력성은 근무시설 유형이나 연령, 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28$, $p < .05$).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M = 3.10$, $SD = .19$)이 보육교사교육원 졸업($M = 3.07$, $SD = .20$)과 2, 3년제 전문대 졸업($M = 3.07$, $SD = .20$)인 보육교사보다 회복탄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삶의 만족도는 근무시설 유형과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보육교사($M = 3.68$, $SD = .80$)가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 보육교사($M = 3.33$, $SD = .65$)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t = 2.63$, $p < .05$). 학력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 = 3.61$, $p < .05$),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M = 3.64$, $SD = .70$)이 보육교사교육원 졸업($M = 3.26$, $SD = .75$)과 2, 3년제 전문대 졸업($M = 3.33$, $SD = .75$)인 보육교사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2.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사

〈표 6〉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및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

변인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상사의 지지	.24**
동료의 지지	.22**
전체	.29**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능력	.03
대인관계능력	.05
긍정성	.65**
전체	.39**

**p < .01.

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및 회복탄력성과 삶의 만족도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 상관계수 r = .29(p < .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소 중 상사의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 상관계수 r = .24(p < .01), 동료의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 상관계수 r = .22(p < .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회복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간 상관계수 r = .39(p < .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회복탄력성 하위요소인 긍정성과 삶의 만족도 간 상관계수 r = .65(p < .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먼저 독립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파악해 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는 10이하(1.03～1.07)이고 공차한계(TOL)는 .93～.97로서 1에 가까웠으며, 잔차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 Watson 계수도 2.25로 2에 가까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모형	독립변인	B	β	t	R^2	R^2 변화량	F
1	(상수)	1.32		3.04			119.44***
	긍정성	1.50	.66	10.93***	.43	.43	
2	(상수)	1.58		3.55			
	긍정성	1.45	.63	10.56***	.45	.02	4.89*
	상사의 지지	.12	.15	2.21*			

*p < .05, ***p < .001.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에는 긍정성(β= .66), 상사의 지지(β= .15)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모형 1에서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소인 긍정성이 투입되었을 때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43%(F = 119.44, p < .001)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소인 상사의 지지가 추가된 모형 2는 2% 증가한 45%(F = 4.89, p < .0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삶의 만족도 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을 변인으로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평균 3.0)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소 중 동료의 지지가 상사의 지지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정희 외, 2014)와 유사한 결과이다. 보육교사는 다양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교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원조로서(박지원, 1985), 보육교사가 보육 업무와 일상적인 활동 가운데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동질성을 경험하는 동료교사들로부터 질 높고 긍정적인 동료의 지지와 도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전체 평균과 하위요소 중에서 자기조절능력과 긍정성 평균은 보통(평균 3.0)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인식을 하위요소별로 살펴보면 자기조절능력, 긍정성, 대인관계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전반적인 양상을 알아본 최효정과 석은조(2013) 및 김정희 등(2014)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권수현과 이승연(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의 회복탄력성 전체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조절력, 충동통제력, 낙관성, 원인분석력,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의 8가지 하위요소 중에서 충동통제력, 공감능력, 원인분석력, 낙관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 긍정성, 대인관계능력 순으로 정서조절능력, 충동통제력과 비슷한 개념인 자기조절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요소별 인식정도에 있어서 측정도구의 차이를 고려할지라도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전반적으로 보통(평균 3.0) 이상으로 나타나 보육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개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긍정성은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길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긍정성은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인 자아낙관성과 행복의 기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만족도,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포함하여 특정대상에게 느끼는 은혜에 보답하려는 정서로 정의되는 감사하기로서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나누어줌으로써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며(김주환, 2011), 긍정적인 정서가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행복하고 희망적인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진형, 김경미, 김동원, 김정희, 2008).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알아본 구서연(2017)의 결과와 일치하며, 영・유아 교사의 성장목표와 성격강점의 요소인 정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장희선(201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육교사의 근무시설 유형, 연령, 학력, 경력 등 인구통계학적 속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삶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회복탄력성은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근무시설 유형과 학력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회복탄력성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가장 높았고 보육교사 교육원 졸업과 2,3년제 전문대 졸업 보육교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력에 따라 4년제 졸업이상인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게 나타난 김정희 등(2014), 남미경과 박봉환(2016), 최효정과 석은조(2013)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는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로 나타나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직무만족도 감소로 인해 높은 이직의도로 연결되며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는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인 보육교사가 가장 높았고 보육교사 교육원 졸업 보육교사와 2,3년제 전문대 졸업 보육교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졸업이상 교사가 전문대 졸업 교사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구서연(2017)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며, 고등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보육교사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오옥선(201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학력 수준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에 대한 완화된 기관 내 분위기가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교육원 졸업 보육교사 중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도 일부 포함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배경을 고려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보육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사회적 지지 전체와 하위요소인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 모두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상사의 지지 또는 동료들의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시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박소영, 2009; 최병태, 김이영, 2013)과 그 맥락이 같다.

이는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원장 및 동료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동료교사들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건강한 조직 환경을 조성할 경우 교사효능감이 증기되

기 때문에(최동선, 1996) 동료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들이 필요하며(권화숙, 2012),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활동을 위한 원장 및 동료교사들과의 활발한 의사교류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회복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회복탄력성 전체와 하위요소 중 긍정성과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질에 자아탄력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혜경(2016)의 연구와 일치하며, 보육교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보호요소로 작용하여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아탄력성을 제시한 선행연구들(박유진, 2012; 이순복, 원지현, 2013; 황해익, 박성미, 탁정화, 2015; Salovey, Bedell, Detweiler & Mayer, 1999)과 맥락을 같이 한다. 탄력성이 높은 보육교사는 보육활동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이는 또한 되도록 긍정적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하게 한다(김혜순, 2011). Garmezy와 Rutter(1983)는 탄력성이 높은 보육교사가 가족이나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심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효정과 석은조(2013)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보육교사가 직무에 만족하게 되며 이는 회복탄력성의 긍정성이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토대로 모든 문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삶에 대해 만족하게 되며 이러한 긍정성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한 변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소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과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추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회복탄력성의 상대적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의 긍정성, 사회적 지지의 상사의 지지 순으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 중 긍정성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보육교사가 보육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 있어 다양한 역경, 시련과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자기 스스로의 장점과 강점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는 자아낙관성, 행복의 기본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삶에 대한 만족 정도, 자신의 삶과 업무 가운데 주변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를 통해 회복긍정성을 높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기 스스로의 장점과 강점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로 정의되는 긍정성 및 하위요소인 자아낙관성(김주환, 2011)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낙관성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김영애와 김문겸(2017)의 연구결과를 볼 때 낙관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역경에 대항하는 개인의 내・외적 능력으로서 삶의 만족도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홍은숙, 2006),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일부 결정되기도 하지만 매우 역동적인 변인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이며, 환경적 요인과 문화・교육적 측면(김도윤, 2011), 개인의 노력과 의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utter, 2007). 이처럼 탄력성은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려움을 처리하는데 기여적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알려졌고(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신현숙, 2003; 이해리, 2007; Rutter, 1993; Masten, 2001), 본 연구에서도 그 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회복탄력성이 지닌 가치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난관을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보육 관련 직무를 잘 수행하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긍정성과 더불어 상사의 지지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최병태와 김이영(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어린이집 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소영, 2009; 최병태, 김이영,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김준환(2014)은 상사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상사 지지의 조절효과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조사한 권화숙(2012), 김정엽(2010), 임안나와 박영숙(2017)도 사회적 지지가 직・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덜 받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Cohen & Hoberman, 1983)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삶의 만족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의 직무연수에 참가한 보육교사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보육교사들에게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범위와 표집 지역을 확대하여 변인들 간의 경로가 일관성 있게 검증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설문지 조사만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므로 심층면접, 관찰이나 내러티브 등의 방법을 통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을 살펴보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소진, 가족, 학부모, 지역사회의 지지 등과 같은 보육교사를 둘러싼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문항과 설문 작성 시간을 고려하여 삶의 만족도를 단문항으로 측정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객관적 삶의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에게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교사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이를 통한 보육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며, 향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강문숙, 황해익 (2008). 보육교사의 직무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4**(2), 57-80.

곽희경 (2011). 유아교사의 행복감 및 자아정체감과 교사 효능감, 교사-유아상호작용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구광현, 김성숙 (2013).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창의성과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

논집, 17(2), 287-304.

구서연 (2017). 유아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구은미 (2004). 보육프로그램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관련 변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151-158.

권대훈 (2017).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삶의 의미, 삶의 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34**(1), 1-24. doi:10.24211/tjkte.2017.34.1.1

권성민 (2011). 유아교사에 대한 사회지지가 업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소진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6**(5), 313-333.

권수현, 이승연 (2010). 유치원 교사의 회복탄력성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7**(2), 137-157.

권화숙 (2012). 사회지지와 근무환경이 어린이집 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업무요인과 소진을 매개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2), 157-174.

김경화 (2011). 권태성향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정서자각능력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도윤 (2011). 지역사회 정신보건 프로그램 환경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민환 (2006). 교사들의 임파워먼트와 학교 및 교직 헌신간의 관계에 관한 학교문화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6**(1), 45-65.

김안나 (2014). 유치원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사전문성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4**(3), 153-175.

김영애, 김문겸 (2017). 사회적 지지가 요양보호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테츠학회논문지, 17**(6), 351-361. doi:10.5392/JKCA.2017.17.06.351

김은수 (2007). 어린이집 교사의 삶의 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 및 대처방법과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응경 (2013). 기혼여성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이영, 박현숙 (2005). 정신장애인이 지각한 동료지지 정도에 따른 임상적, 기능적, 주관적 경험의 차이. **정신간호학회지, 14**(4), 353-361.

김정엽 (2010).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복지행정논총, 20**(2), 29-62.

김정희, 김동춘 (2010). 영유아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조직커뮤니케이션 능력,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1**(3), 149-173.

김정희, 이용주, 김동춘 (2014).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3), 103-120.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고양: 위즈덤하우스.

김준환 (2014). 사회복지사 이직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SSO(Stress-Strain-Outcome)모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심 (2014).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진, 이수정 (2012). 예비유아교사의 교사동기와 구성주의 교수신념이 학부모-교사 파트너쉽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교육연구, 29**(4), 637-663.

김혜순 (2011).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개인적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종교성의 매개효과. **종교교육학연구, 35**, 139-158.

남미경, 박봉환 (2016).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회복탄력성에 따른 이직의도 수준 분석. **인성교육연구. 1**(1), 48-66.

류성봉 (20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삶의 질 연구: 노후준비 및 직무만족의 영향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은식 (2015).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부모자율성지지, 친구의 사회적지지, 기본심리욕구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9**(4), 737-756. doi:10.17286/KJEP.2015.29.4.05

박경옥, 김지연(2017). 특수학교 교사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지적장애연구, 19**(2), 121-145.

박경희 (2005). 유치원 교사의 교직헌신 척도 개발 및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동필, 이지연 (2016).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소진 간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2), 53-70.

박소영 (2009). 보육교사로 살아가는 힘에 관한 이야기: 10년 이상 경력 교사들의 이야기.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유진 (2012).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창현 (2015). 유아교사의 개인특성과 유아교육기관 특성이 유아교육기관의 질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201-220. doi:10.14698/jkcce.2015.11.201

박현주 (2011). 사회복지조직에서의 갈등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영선 (2007). 유치원 일반학급교사와 통합학급교사의 소진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선희 (1997). 정부의 보육시설 공급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한 평가. **한국영유아보육학, 10,** 189- 210.

서영숙, 박진옥, 서혜전 (2014). 보육교직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4), 5-28. doi:10.14698/jkcce.2014.10.4.005

손세영, 임귀희, 남기영 (2015). 보육시설평가인증제와 보육의 질-학부모와 교직원을 중심으로. **21세기사회복지연구, 12**(2), 35-60.

손홍숙 (2015). 보육정책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5**(2), 65-84.

송미경, 양난미, 이은경 (2016). 교사의 소명의식, 자아존중감, 직업적 정체감, 삶의 만족간의 관계. **교원교육, 32**(4), 197-218. doi:10.14333/KJTE.2016.32.4.197

신현숙 (2003). 가정환경 역경과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보호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11**(2), 71-84.

오옥선 (2014). 유아 교사의 완벽주의 성향이 교사 효능감, 직무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5), 291-310.

오정석 (2013). 경찰 직무스트레스와 긍정적 사고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갑정 (2012). 예비보육교사의 목표, 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우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113-131.

윤창영 (2001). 기혼 직장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선 (2000). 보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미란, 김정원 (2011). 영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사 헌신.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2**(2), 243-260.

이순복, 원지현 (2013). 유아교사의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3), 263-281.

이순애, 성소영 (2012). 보육교사의 배경변인과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도. **아동교육, 21**(3), 267-284.

이은설, 신윤정 (2017). 인지적 유연성이 중·고등학교 교사의 직업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교, 14**(2), 235-258. doi:10.16983.kjsp.2017.14.2.235

이은숙 (2016).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직무스트레스, 보육효능감, 보육헌신 및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희, 조성연 (2011). 보육교사의 소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시설장, 동료교사와 가족의 사회적 지지. **아동학회지, 32**(1), 157-172. doi:10.5723/kjcs.2011.32.1.157

이지우, 장영혜, 강인호(2016). 감정노동, 조직몰입, 삶의 만족의 관계. **관광연구, 31**(3), 277-295.

이해리(2007). 역경과 유연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5**(1), 51-66.

임안나, 박영숙(2017).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지, 17**(3), 675-682. doi:10.5392/JKCA.2017.17.03.675

장진이, 이지연 (2014). 교사의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의 의미, 소명수행 의식, 삶의 의미, 직업 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123-146.

장희선 (2016). 영유아교사의 성격강점과 생애목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3), 169-196. doi:10.22155/JFECE.23.3.169.196

전혜경 (2016).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유아**

교육 · 보육복지연구, **20**(3), 101-124.
정선영 (2017).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개인 가치관의 영향력: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1), 71-81. doi:10.7466/JKHMA.2017.35.1.71
정일영, 김찬우 (2015).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서울시 거주 중고령자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6**(1), 149-168.
조성연, 이정희 (2010).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원장, 동료의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29-42.
조성자, 문수백, 민하영 (2008).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지각된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25-32.
조영아, 이재은 (2017). 자원봉사 관리자의 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 경력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9**(2), 111-135. doi:10.23840/agehrd.2017.49.2.111
조진형, 김경미, 김동원, 김정희 (2008). 감사일지 작성이 주관적 안녕감,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감사성향 및 신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담론201, 11**(2), 75-101.
천경주, 최주희, 김유리, 이상옥, 장철훈, 김성수 (2017). 교대근무 간호사와 비교대근무 간호사의 공감수준이 삶의 만족도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261-273. doi:10.5392/JKCA.2017.17.03.261
천성문 (2014). 유아교사의 성격강점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5), 2623-2637.
최병태, 김이영 (2013). 개인특성과 사회지지가 어린이집 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와 업무스트레스를 매개로.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1), 7-23.
최효정, 석은조 (2013).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5**, 93-115.
하춘광 (2015). 호주 시드니 거주 한인 중년층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연구. **보건사회연구, 35**(2), 193-225. doi:10.15709/hswr.2015.35.2.193
홍은숙 (2006).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황해익, 박성미, 탁정화 (2015). 예비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14**(2), 193-218.
황해익, 송연숙, 정혜영, 남미경, 정혜영, 유수경 (2015). **보육교사론.** 서울: 정민사.
황해익, 탁정화, 강현미 (2014).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인식수준에 따른 소진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9**(4), 31-52.
황해익, 탁정화, 홍성희 (2013). 유치원 교사의 회복탄력성,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7**(3), 411-432.
Block, J. G., & Kremen, A, M. (1986). IQ and ego 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410. doi:10.1037/0022-3514.70.2.349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doi:10.1097/00006842-197609000-00003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doi:10.1111/J.1559-1816.1983.tb02325.x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doi:10.1207/s15327752jpa4901_13

Essa, E. L. (2003).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4th Ed). NY: Delmar Learning.

Garmezy, N., & Rutter, M. (Eds.). (1983).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Greenhaus, J. H., Parasuraman, S., & Wormley, W. M. (1990). Effects of race on organizational experiences, job performance evaluations, and career outcomes.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1), 64-86. doi:10.2307/256352

Gu, Q., & Day, C. (2007). Teachers resilience: A necessary condition for effectivenes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3*(8), 1302-1316. doi:10.1016/j.tate.2006.06.006

Helm, C. M. (2006). Teacher dispositions as predictors of good teaching. *Clearing House, 79*(3), 117-118. doi:10.3200/TCHS.79.3.117-118

Le Cornu, R. (2009). Building resilience in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5*(5), 717-723. doi:10.1016/j.tate.2008.11.016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The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doi:10.1037/0003-066X.56.3.227

Minor, L. C., Onwuegbuzie, A. J., Witcher, A. E., & James, T. L. (2002). Preservice teachers'educational beliefs and their perceptions of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teache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ch, 96*(2), 116-127. doi:10.1080/002206709598798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doi:10.1093/geronj/16.2.134

Reivich, K., & Shatte, A. (2002). *The resilience: seven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ventable obstacles.* NY: Broadway books.

Rutter, M. (1993). Resilience: Some conceptual consideration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4*(8), 626-631. doi:10.1016/1054-139X(93)90196-V

Rutter, M. (2007). Resilience, competence, and coping. *Child Abuse & Neglect, 31*(3), 205-209. doi:10.1016/j.chiabu.2007.02.001

Salovey, P., Bedell, B. T., Detweiler, J. B. & Mayer, J. D. (1999). Coping intelligently: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coping process. In C. R. Snyder(Ed.). *Coping: The Psychology of what works.* (pp. 141-16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Thomas, L., & Ganster, D. C. (1995). Impact of family-supportive work variables on work-family

conflict and strain: A control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1), 6-15. doi:10.1037/0021-9010.80.1.6

논 문 투 고 : 17.12.15
수정원고접수 : 18.01,17
최종게재결정 : 18.02.12